

<춘향전> 다시 읽기

—抵抗보다 投降—

강 문 중*

차 례

1. 들어가며
2. 춘향의 무의식적 징후들
3. 烈女, 그 허위의식
4. 저항일까? 투항일까?
5. 옥 같은 춘향 몸에 어찌 누추한 말을
6. 위험한 소설 <춘향전>
7. 결론을 대신하여

1. 들어가며

<춘향전>은 우리 고소설사에서의 위치와 작품성 및 타 장르인 판소리와의 연관성 때문에 고소설 연구 초기부터 연구의 중심에 있었다. 다양한 논의를 거쳐 우리문학 특히 소설사에서 명실상부한 최고의 작품으로 인정되고 있다. 특히 한문본을 비롯하여 일본어·영어·독일어·프랑스어로 번역될 만큼 한국 국문 고소설의 대표성을 인정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부연구원

청춘 남녀의 사랑이 중심이 되어 있어 매우 많은 분야에서 현대화가 가장 잘 이루어졌다. 판소리는 물론 창극으로 거듭났고, 나아가 현대 대중매체와 연결되어 다양하게 재해석 되고 있다.

이러한 춘향전은 일반적으로 애정소설로 인정되면서도 사회에 대한 저항의식이 담겨져 있다고 보는 경향이 많다. 민중의 潑刺性에서 우리나라 완판본 <춘향전>의 不合理性을 중세를 극복하는 生活解放運動으로 해석하기도 하고¹⁾, 사회저항 및 비판의식 나아가 인간의 해방 사상을 이 작품의 裏面的인 주제로 끌어올리기도 한다.²⁾ 이러한 현상은 특히 정치체제의 특수성으로 인해 북한에서 더욱 농후하게 드러난다.

필자는 이 소설이 남녀 간의 아름다운 사랑을 그린 소설이라는 점에는 의의가 없다. 그러나 이 작품이 과연 저항적 혹은 비판적 성격을 담고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는 의문이 든다. <춘향전>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에게서 각자의 신분에 대한 계급의식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물론, 봉건사회에 대한 비판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혹자는 변사또에 대한 저항을 당대 탐관오리와 사회적 모순을 비판했다는 식의 해석을 한다. 그러나 이 부분이 변사또 한 사람에 대한 비판인지 그를 대표로 하는 계급사회의 모순을 비판한 것인지는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³⁾

필자는 판소리의 장르적 특징 등을 비롯하여 작품 외적인 요소들을 배제한 채 이 작품의 내적 세계와 등장인물의 성격 및 발화된 내용을 분석하여 사회비판 및 저항적 요소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혹은 드러나지 않는

- 1) 최진원, 「판소리文學放-春香傳의 合理性과 不合理性-」, 『大東文化研究』2,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66. 특히 최진원은 84장본 완판본 <열녀춘향수절가>와 신재효본 <춘향가>를 비교 고찰하여 이와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그러나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는 기존 연구에서 20세기 초에 방각본의 형태로 나온 작품으로 인정된다. 특히 태몽이 포함된 춘향의 출생과정과 이도령과의 이별 장면에 등장하는 춘향의 심한 패악성 등은 필자가 고찰한 33장본 완판 <열녀춘향수절가>에서는 나타나지 않거나 혹은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 2) 조동일, 「葛藤에서 본 '春香傳'의 主題」, 『啓明論叢』제6집, 계명대학교, 1969, p30.
- 3) 이러한 문제의식은 金宇鍾, 「抵抗없는 成春香」, 『現代文學』6월호, 현대문학사, 1957. 韓勝憲, 「抵抗인가, 適應인가-法律家가 본 <춘향전>-」, 『文學思想』5월호, 문학사상사, 1974. 등에서 단편적으로 언급된다.

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⁴⁾

<춘향전>의 이본은 1999년 조희웅의 조사에 의하면 그 수가 무려 374개가 된다. 특히 설성경이 『춘향예술사자료총서』를 출판하면서 그 계통의 대표성을 지닌 이본을 53개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연구 성과들을 참고하여 필자는 이 글의 텍스트로 丙午孟夏 完山開刊 33장본 <열녀춘향수절가>를 선택했다. 그 이유는 첫째, 완판본 중에 유일하게 干支가 있어 연도 추정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⁵⁾ 둘째, 이 이본은 20세기 이전의 <춘향전> 계열에서 시간적으로 가장 이른 계열인 <별춘향전>계열⁶⁾과 20세기 초(1906~1911)에 간행된 西溪書舖刊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를 이어주는 이본이다. 이러한 이유로 丙午孟夏 完山開刊 33장본 <열녀춘향수절가>는 <춘향전>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지고 대표적인 이본으로 인정되는 완판본 <열녀춘향수절가> 계열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의 이본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丙午孟夏 完山開刊 33장본 <열녀춘향수절가>는 <춘향전>을 고찰하는 중심 텍스트로 크게 부족하지 않다.⁷⁾

2. 춘향의 무의식적 징후들

계획되지 않고 우연히 말해지는 내용 속에 발화자의 의식이 투영되는

-
- 4) 이 논의에서 필자는 지금의 시각에서 ‘제급의식’과 ‘저항’이라는 개념을 통해 <춘향전>전의 내용을 분석할 것이다. 현대적 시각으로 우리의 가장 대표적인 고전을 재해석해 보는 것도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고 여겨진다.
 - 5) 기존연구에서는 주로 1846년 혹은 1906년을 추정하고 있다.
 - 6) 설성경의 연구에 의하면 20세기 이전의 <춘향전>은 별춘향전 계통과 남원고사 계통으로 나뉘는데 시기적으로 별춘향전 계통이 앞서 있으며 남원고사 계통은 별춘향전 계통에서 파생하여 성립된 것으로 보고 있다. 설성경 편저 『춘향예술사자료총서』1, 국학자료원, 1998, p16.
 - 7) <춘향전>은 한국 고소설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로 인해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된 작품이기도 하다. 1991년 우쾌계의 조사에 의하면 268편의 논문이 있었고, 저자의 수만도 166명이나 된다. 이후에도 <춘향전>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고, 각 종 논문 목록을 채우고 있다. 이러한 방대한 연구사를 모두 검토하지는 못했다. 다만 이 글에서 필자는 <춘향전>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고정관념처럼 인식되는 지점을 지적하고 이를 논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경우가 많다. 이는 주로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무의식적이라 할 수 있다. <춘향전>의 주인공인 춘향의 독백과 무심코 말하는 부분에서 춘향이 주류사회 속으로 편입되고 싶어 하는 징후들을 찾을 수 있다.

추파를 잠간 들어 도령을 살펴보니 만고의 호길이요 진세간 괴남자라 천청이 뉘파쓰니 소년공명홀 거시오 오악이 조구하니 보국충신 될 거시미 춘향이 흠모하야 아미를 수기고 염실단좌 썬이로다(7쪽)⁸⁾

이도령이 광한루에서 그녀를 타는 춘향을 보고 방자로 하여금 데려오게 하여 춘향을 처음으로 만난 자리에서 이도령이 춘향의 외모를 칭찬하자, 이에 혼자 속으로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내용이다. 이 자신을 향한 내적 발화에서 핵심이 되는 용어가 바로 ‘少年功名’·‘輔國忠臣’이다. 자신이 이상형으로 삼고 있는 남자의 기준이 무엇인지 잘 드러내고 있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남자를 평할 때 ‘功名’·‘輔國’·‘忠臣’을 떠올리고 이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사람임을 느껴 호감을 갖게 된다. 춘향의 자아⁹⁾가 결코 주류사회를 향해 저항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징후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징후는 곳곳에 등장한다.

츄불사이군이요 열불경이부절은 옛글의 잇스오니 도련임은 귀공자요 소녀는 천첩이라(7쪽)

역시 이도령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춘향이 말한 내용이다. 이는 내적 인 독백과는 다르다. 내적인 독백에서는 자신의 욕망과 바람 즉, 이상적인 남성상을 은밀하게 자아에게 말하고 있다면 발화가 외면으로 구체화 되었

8) 쪽 표시는 원본이 시작되는 쪽을 1쪽으로 하여 표시한 것임.

9) 여기서 사용한 자아의 개념은 사전적 의미인 “대상의 세계와 구별된 인식·행위의 주체이며, 체험 내용이 변화해도 동일성을 지속하여, 작용·반응·체험·사고·의욕의 작용을 하는 의식의 통일체.”이다.

을 때 이는 청자인 이도령이라는 양반집 자제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때 문에 명분과 의리에 맞아야 한다. 따라서 춘향은 조선시대 여성의 최고의 덕목인 정절을 표현해 주는 공식적이고 상투적인 용어로 이도령에게 말하게 되는 것이다. 이 춘향의 발화에서 핵심어는 ‘不事二君’·‘烈女不更二夫節’이다.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賤妾’이라는 용어로 자신을 표현하는 장면에서 자신의 신분적 한계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서도 양반 여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덕목들을 앞으로 내세우고 있다.

나도 너를 업고 조흔 말을 햏여쁘니 너도 나를 업고 조흔 말을 햏여라
 그러면 이리 업피시오 조흔 말 햏오리다 햏을 적의 등” 조홀시고 진사급제를
 업은 듯 동부승지를 업은 듯 팔도감사를 업은 듯 삼정승을 업은 듯 여상이를
 업은 듯 부열이를 업은 듯 보국판서를 업은 듯 외삼천녀 팔빅 주석□□□□¹⁰⁾
 니 서방이제 니 서방 이리 보와도 니 서방 저리 보와도 니 서방 알들 간”
 니 서방이제(19~20쪽)

사랑가를 부르면서 성애를 질펀하게 즐기던 중 좋은 말을 하라는 이도령의 청을 받고 춘향이 한 말이다. 이도령이 얘기하는 ‘좋은 말’의 의미는 장면의 앞 뒤 문맥을 통해 보면 흥미 있는 말, 혹은 야한 말, 나아가 지금 성행위의 즐거움을 더해 줄 수 있는 말을 의미한다. 그러나 춘향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다소 엉뚱한 내용이다. 이러한 춘향의 발화는 주로 자신의 의식 속에 있는 남성상을 벼슬 이름으로 대신하여 보여주고 있다. 자신의 이상적인 남성상을 말할 때 첫째로 든 인물은 進士다. 그 다음으로 同副承旨와 八道監司에 이어 三政丞이다. 이는 내외 요직을 두루 거치고 최고의 자리에 오른 인물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殷나라 高宗 때 재상인 傅說, 卍나라가 천하를 통일할 때 가장 큰 공신이자 뛰어난 정치가인 呂尙 등의 이미지를 이도령에게서 발견한다. 그리고 나서 이 정도는 되어야 ‘니 서방

10) 한국고소설연구회 편, 『春香傳의 綜合的 考察』, 亞細亞文化社, 1991.에 영인된 자료를 활용했다. 이 자료에서 이 부분은 판독이 어렵다.

이제 니 서방 이리 보와도 니 서방 저리 보와도 니 서방 알들 간간 니 서방이제'이라고 노래한다. 이는 여성으로서 춘향이 머리 속에 이상형으로 간직한 남성의 이미지다. 다시 말하면 그녀는 비록 천한 신분이지만 자신이 그리는 배우자로서의 남성은 일종의 '백마 탄 왕자님'이라는 여느 여성의 남성상과 다르지 않다.

훌륭한 인물들이 이상형에 속한다면 현실적으로 조선사회에서 가장 좋은 남편감 혹은 배우자는 역시 과거에 급제하고 핵심 직책인 왕의 비서실장을 거쳐 각 지방의 수령을 두루 경험한 후 文衡과 같은 최고의 명예를 얻음과 동시에 지식인으로서 인정을 받은 후 '一人之下萬人之上'인 영의정까지 올라간 인물이다. 실로 완벽한 남성을 역시 '알들 간간 니 서방이제'라고 노래한다. 이를 통해 본다면 춘향의 이상형은 시대에 철저히 속해 있으면서 누구나 인정하는 출세하고 잘 나가는 남성이다. 물론 이 춘향의 발화는 단순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도령이 작중 청자인 춘향을 대상으로 하여 사랑가를 부르면서 각 종 성행위에 대해 질편하고 애로틱하게 묘사하는 반면 청자를 이도령으로 한 춘향의 발화에서는 가장 완벽한 남성상을 표현하고 있다. 특히 춘향의 발화 다음에 다시 이도령의 발화가 이어지는데 역시 야하다야한 장면이 계속 묘사된다.

이처럼 이도령의 발화는 성적 판타지를 언어화 한 것임에 반해 춘향의 발화는 이상적 남성상을 언어화시켜 이도령의 나르시시즘을 강화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사랑가 속에는 성적 욕망과 계급적 욕망이 서로 결합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도령의 욕망을 극대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아름답고 진솔한 성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비록 이 장면이 춘향이의 무의식적인 표현일¹¹⁾ 지라도 그것은 춘향의 내면에 있는 무계급의식을 비롯하여 주류사회에 대한 무저항의식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1) 춘향이 위의 예문과 같이 말한 것은 미리 준비해 둔 말이라기보다는 이미 내면화된 생각을 무심코 말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앞 뒤 내용과 동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도령이 요구한 '좋은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므로 이를 무의식적 발언이라 해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3. 烈女, 그 허위의식

인간은 누구나 허위의식을 갖고 있다. 자신의 존재 기반인 현실로부터 떨어져 있어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반영하지도 못한 의식이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한 개인에게서 어떻게 가능할까? 아마도 無自我이거나 자신으로부터 자아를 분리해야 가능할 것이다. 자신이 속해 있는 대상으로서의 세계와는 구별된 인식 및 행위가 이루어져야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서 자아를 분리할 수 있다.

잔말 "고 수청들나 춘향이 옛자오디 춘불사이군이요 열불경이부절을 본
 밧고자 ㅎ읍거늘 분부 시형 못ㅎ것소 잔말 "고 수청ㅎ라 춘향이 알외되 죽
 으면 죽사와도 분부 시형 못ㅎ것나니다 네 무삼 잔말ㅎ난고 이제 밧비 수청
 들나 춘향이 알외되 소노님은 세상이 변ㅎ오면 두 무릅을 꾸러 두 인군을
 섬기려 ㅎ시난잇가(31쪽)

변사또의 수청을 수차례 거부하면서 춘향이 청자인 변사또에게 하는 말은 기생이란 신분엔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다. 관기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관장의 수청을 거부하면서 그 명분을 '貞節'에 두고 있다. 수청을 거부하는 이유를 '사랑' 혹은 '변사또에 대한 애정의 부재'에 둔다면 차라리 솔직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같이 '忠臣' 혹은 '烈女'를 예로 들면서 강조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사대부 여인에 자신을 동일시 시켜서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¹²⁾ 즉, 춘향은 이 부분에서 강한 자아가 형성되어 변사또의 지시를 주체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12) 이러한 결과로 춘향은 관기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개인적인 영역인 사랑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고 있다. 박희병, 「春香傳의 歷史的 性格 分析」, 『전환기의 동아시아 문학』, 창작과 비평, 1985, pp105~106.에서 다섯 가지의 근거를 들어 춘향이 이별 후 烈女로서의 행위는 봉건적 의미의 열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고, 이도령과 서로 다짐한 약속을 이행하는 성격을 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춘향의 행위야말로 기존의 이데올로기와 관습에 자발적 복종을 한 것이라고 본다.

다. 춘향의 내면에 자리를 잡은 자아는 '烈女'로 대표된다. 이는 외부세계와는 차별을 둔 주체적이고 개인화 된 자아가 아니고 당시 이데올로기에 철저하게 동화된 자아다. 기생이라는 신분으로서의 주체적 자아 혹은 계급의식이 형성되었다면 오히려 이도령에게서 벗어나 자유로운 결정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사대부여성과의 동일시는 이도령과 이별 후 꾸는 꿈을 통해 명확히 드러난다.

비몽사몽간의 호접이 장듀 되고 장듀가 호접되야……압질을 인도호거늘 뒤를 따라 드러가니 빅옥 현판의 황금디자로 만고정열 황능외라 두려시 식여거늘 심신이 황홀하여 진정키 어렵더니 당상의 빅의흔 두 부인이 옥슈를 너짓 드리 춘향을 청호거늘……좌를 주워 안친 후의 네가 춘향인야 기특한 사람이로다 조선이 비록 소국이나 예의동방 기자유친 청누주식 변화장의 저런 절향 잇단 말가(38쪽~39쪽)

춘향이 수청을 거부하고 심한 태형을 받은 후에 옥에 갇히게 되고, 이어 꿈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이다. <사씨남정기>를 비롯해 고소설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의 이상형으로 娥皇과 女英이 등장한다. 특히 등장인물 중에 훌륭한 귀부인 혹은 여성들이 꿈속에서 자신의 어려움을 달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旅程이 바로 黃陵廟를 찾아가 선녀가 된 아황과 여영을 비롯하여 절개를 지킨 여인들을 만나 후생을 기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춘향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이 부분에서 아황과 여영¹³⁾의 입을 빌어 춘향이 기생임을 확인하고 그러한 기생 중에 절개가 뛰어나다고 칭찬하고 있다. 이는 다른 존재의 입을 빌었지만 결국 자기 자신이 '나는 기생이지만 다른 기생들과는 달라'라고 꿈을 이용해 자기최면을 걸고 있는 것이다.

기생이라는 신분으로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되고 그 이별을 통해 기생이라는 정체성 위에 '烈女'의 정체성을 더하고 있다. 이는 당대의 이데올로기¹⁴⁾ 속에 몰입된 인물의 형상이라고 보아도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13) 황릉묘에 있는 두 부인으로 묘사됨.

14) 여기서 사용한 이데올로기라는 개념은 사전적인 의미인 '사회 집단에 있어서 사

4. 저항일까? 투항일까?

특정 계급의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심리, 태도 따위의 특징적인 경향 등을 소위 계급의식이라고 한다. 이러한 계급의식은 자기가 속하는 계급의 지위, 역할, 사명 따위를 자각하고 또 이것들의 향상을 실현시키려 하는 경향으로 표출된다. 이 경우 다른 계급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사회적으로 낮은 계급과 높은 계급 간에 충돌이 자주 발생하는데, 낮은 계급의 시각에서 본다면 이를 높은 계급에 대한 저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저항이 춘향전에서 나타나고 있을까?

<춘향전>의 전체 내용이 바로 전반부에서 이도령을 만나고 사랑하는 과정을 거쳐 이별하는 데까지라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계급의식은 거의 드러나지 않고 사회적 신분으로서 기생과 귀족간의 넘을 수 없는 벽으로 갈등을 한다거나 혹은 절망하지도 않는다. 아주 자연스럽게 두 사람의 사랑이 이루어진다. 후반부에서는 춘향이 변사또의 수청을 거부하고 수절하다가 이도령이 암행어사로 부임하여 춘향을 구하고 행복한 결말로 끝을 맺는다. 이 과정을 주로 탐관오리에 대한 저항, 계급의 모순에 대한 저항, 사회적 현실과 고정관념에 대한 저항 등 등으로 설명한다. 춘향이 변사또에게 보인 행동이 진정한 의미에서 저항일까?

일부종사호을 년이 일심으로 구더쁘니 일역으로 호오릿가……불경이부 이너 심사 이 미 맛고 죽인디도 이도령은 못 잇것소……삼중지도 지중헌 법 삼강오륜 알어쁘니 삼치형문 정비호여도 분부 시형 못호것소……사더부 사또님은 사과스를 모로시요 스지를 갈너너여 스더문의 회시호여도 사부집 도령임은 못 잇것소……오미불망 우리 사랑 오날이나 소식 올가 너일이나 기별 올가……육시호야 쓸디 잇소 칠척검 드난 칼노 동* 장 글르제 형장으로 칠 것 잇소……팔도방벽 수령임네 치민호러 너려왔제 학정호러 너려왔소……구곡간장 흐르난 눈물 구천의 사뭇춘니 주긴디도 쉼터 업소(33쪽~34쪽)

상, 행동, 생활 방법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관념이나 신조의 체계. 역사적·사회적 입장을 반영한 사상과 의식의 체계이다.

춘향이 수청을 거부하고 태장을 당하면서도 변사또를 향해 이루어지는 발화의 내용이다. 주로 이 대목을 十杖歌라고 하기도 한다. ‘一夫從事’ · ‘不更二夫’ · ‘三從之道’ · ‘三綱五倫’ 등의 말이 이 발화의 내용에서 주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죽어도 나는 당신의 수청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항거하고 있다. 얼핏 보면 못된 관장에 대한 춘향의 항거로 볼 수 있다. 특히 ‘치민호러 너려왓재 학정호러 너려왓소’라는 부분에서 더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춘향전>에서 악인으로 그려지며, 유일한 절대 악으로 형상화되는 변사또의 악행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세금을 과중하게 부과하거나 형벌을 과하게 하거나 하는 등의 학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변사또가 악하게 그려지는 유일한 부분이 바로 춘향을 대하는 대목이다. 이 부분을 갖고 변사또를 탐관오리 혹은 포악한 관장, 혹은 봉건시대의 모순이 총체적으로 투영된 인물로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므로 춘향에게 수청을 강요하는 이 장면에서조차도 철저하게 기생의 신분을 망각한 춘향과 이를 좌시하지 않는 변사또 간의 갈등으로 독해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것이 유교사회의 모순 및 탐관오리를 비판하는 것으로 봐서는 안 되고, 오히려 철저하게 유교주의의 관념인 ‘烈’ · ‘貞節’ 등을 지키려는 행위인 것이다. 자신을 꺾박하고 억압하는 존재인 변사또 역시 계급의식을 갖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忠臣不事二君’ · ‘烈女不更二夫’를 깨려는 행동을 비판하는 것이다. 물론 그 안에는 한 남자에 대한 사랑이 스며들어 있으나, 결국 춘향과 변사또 사이의 갈등의 근본 원인은 바로 유교적 이데올로기를 지키려는 춘향의 판타지와 실정법에 의거해서 부정하려는 변사또의 행위에 있는 것이다. 변사또는 이러한 근거로 춘향이 보통 여염의 여성이 아니라 기생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춘향은 기생에게도 유교적 이데올로기를 철저히 따를 권리를 갖는 여성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즉, 춘향은

“나는 기생이기 이전에 여자다.”

“그러므로 나에게도 유교적 덕목을 실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정절을 지키려는 나를 방해하지 마라”

라고 강조하는 것이다. 충·효·열에 있어서는 실정법보다 관습법을 더 중시했던 조선사회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춘향이 조선사회의 유교적 세계관에 철저하게 투항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즉 당시의 사회 혹은 유교적 모순을 비판하는 행위가 결코 아니다. 이러한 정절을 지키는 행위가 자발적이고 의지의 소산이며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의리가 투영된 것이라도, 그것이 사회가 요구하는 이데올로기에 철저하게 순응하는 것이 라면 이를 주류사회에 대한 저항으로 볼 수는 없다.

5. 옥 같은 춘향 몸에 어찌 누추한 말을

<춘향전>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민중들 중에는 추수하는 농민들이 있다. 이들은 등장하는 위치나 혹은 분량에 비해 <춘향전>을 이해하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¹⁵⁾ 이러한 농부들의 모습을 건강한 민중들의 삶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농민들의 발화를 통해 그들의 의식을 살펴볼 때 역시 사회에 대한 비판적 요소 혹은 저항적 요소가 들어나지 않는다.

어스의 이른 말리 이 골 스폏 정쳐 엇더흔고 농부 디답흐되 우리 스폏 정
쳐 엇더홀 것 잇소 원임은 노망이요 좌수는 주망이요 아전은 도망이요 빅성
은 원망이니 사망이 물미돏 흐지요 어사 다시 무르되 드르니 춘향이가 사포
수청들시 분명헨가 저 농부 귀골이 출흐야 흐난 말리 옥갖흔 춘헨 몸의 누
취흔 말 엇지 홉나 ……다리에 독흔 형문흐치 밍장흐야 항쇄 수쇄 금수옥중
흐야 명지경각 흐여쁘니 그러흔 선정지관원은 어디 이쁘라(47쪽~48쪽)

15) <춘향전>에서 등장하는 농부들의 모습은 조선시대 吸燠이라든가 農夫歌 혹은 수확의 장면을 다룰 때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이도령이 어사또가 되어 남원부로 내려오던 중 들녘에서 벼를 수확하는 농부들과 만나서 하는 대화다. 지방관의 실태를 농민들을 통해 확인하면서 춘향에 대한 소식을 듣고 싶은 마음에 유도질문을 한 것이다. 이 부분은 암행어사가 현장에서 정치적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인 것이다. 이 공론의 장에서 농부들은 네 가지 병폐를 '사망'으로 표현하고 있다. 농민들은 문제가 무엇인지 혹은 어려움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네 가지 병폐에 대해서는 단 한 가지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 춘향의 소식에 대해서는 이도령이 오해한 부분까지도 매우 자세하게 변호하면서 춘향의 실재 상황을 구체적이고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농부와의 대화에서 앞에 간단히 언급한 '사망'은 춘향을 괴롭히는 변사또의 만행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로 느껴진다. 농부들이 원망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烈女'인 춘향을 괴롭히기 때문임을 유추할 수 있다. 이처럼 농민들은 공론의 장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그 실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성에 호소하는 춘향의 문제만을 이야기 하고 있다. 이는 농민들에게 계급의식이 결여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근거는 농부들이 부르는 노래의 내용에 자세히 드러난다.

어이여루 상사뒤오 여보소 농부더라 너 말을 드러보소 천리건곤 텃평시의
 도덕 놉푼 우리 성군 강구의 문동요라 순인군의 버금일제 어이여 "루 상사
 뒤오 두리동통" 쾩미쾩 / 어이여 "루 상사뒤오 모지도다 " " " " " 우리 골
 사또가 모지도다 월삼동취 독헌 형벌 몹시도 쾩 " 썩려서 거의 죽게 싱겨쁘
 되 중시 췌절 안이하고 죽기로만 절단하니 그런 열녀 어디 있나(46쪽)

농부들이 들에서 일을 하면서 노동의 시름을 잊기 위해 부르고 있는 노래다. 이 노래의 내용을 보면 지금의 세월이 태평성대임을 강조하고 있다. 변사또가 착취하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의 세월이 순임금이 다스리던 시대와 비교할 만큼 평화로운 시대로 인식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농부들이 부르는 노래의 그 다음 내용에서는 절개를

지키려는 춘향에 가혹한 형벌을 준 변사또를 비판하고 있으며, 마지막 내용으로는 ‘일이 진척되어 이제 작업량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빨리 끝내자’는 내용과 ‘어진 임금을 만났으니 농사 열심히 지어보자’라는 내용이 이어진다. 그러므로 이 노래에서도 변사또를 비판하는 부분은 분명히 춘향과의 문제에 국한되어 있다. 역시 작품 속에서 민중으로 대표되는 농민들의 목소리도 역시 봉건적 모순의 총체적인 모습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목소리에서 역시 비록 기생의 신분이지만 여성의 최고 덕목인 정절을 지키는 것은 매우 훌륭한 일임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러한 춘향을 폄박하는 변사또를 비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농민들의 의식 역시 시대를 비롯해서 지배층의 총체적인 모순을 비판하고 이에 대한 저항의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유교적 세계관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각들은 춘향의 동료 기생들에게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엇던 기생 혼나 춤추며 나오난디 얼시구 절시구 조을시구 여러 기생 듯더니
저년 밋쳐꾸나 춘향은 띠를 맞고 거의 죽게 되여난디 너는 무삼 혐우 잇서
춤 추고 길기난야 형님네 드러보소 히서기생 농선이는 동설영의 죽어 잇고
평양기생 월선이는 소섭의 목을 베여 김장군게 드리고 천추혈식하엿고
진주기생 논기는 왜장의 목을 안고 남강의 떠러졌기로 천추의 형사하여쁘니
우리 남원도 현판감이 삼겨꾸나(35쪽)

춘향이 매를 맞고 인사불성 된 것을 동료 기생들이 업고 문 밖으로 나와 모여서 서로 통곡하고 슬퍼할 때 한 기생이 오히려 축하하는 노래를 부른다. 온몸을 바쳐 절개를 지킨 지역의 名妓들을 일일이 거론하며 이제 남원부에서도 현판을 올릴 춘향이라는 기생이 탄생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마치 효자·충신·열녀가 난 가문에서 자랑스러워하는 모습과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 볼 때 역시 춘향을 포함한 기생들 모두가 기존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충·효·열에 대한 보수적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모두 주체적인 자아를 갖고 시대와 정면으

로 부딪치는 것이 아니라 당대 가장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6. 위험한 소설 <춘향전>

<춘향전>은 두 명의 양반과 대부분의 민중들이 서로 관계를 맺으며 서사를 이루고 있다. 특히 일반 민중들에 포함되는 모든 등장인물들에게 계급의식이 결여되어 있어 시대를 비판하고 시대와 충돌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춘향전>에서 저항의식 및 비판의식을 찾기가 사실상 힘들다.

춘향은 봉건적 모순의 총체성으로 이해되는 변사또와의 대결구도를 통해 여성·계급·신분제도 등의 모순에 항거하는 인물로 그려졌다. 그러나 실상은 변사또의 악행이 구체화된 부분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변사또가 춘향을 억압하는 이유는 바로 官妓라는 신분적 정체성을 망각하고 있는 춘향에 대한 일종의 처벌인 것이다. 이에 대해 춘향은 전통시대의 이데올로기로서 가장 대표적인 충·효·열이라는 관념에 투항하면서, 이를 인간다운 삶이라고 외치고 있다. 따라서 춘향이라는 인물을 통해 본다면 전통사회의 모순에 저항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투항하면서 자신을 지키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농민들의 의식 또한 마찬가지다. 겉으로는 변사또를 탐관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당대의 삶이 행복하고 태평성대임을 수차례 강조하고 있다. 다만 춘향을 핍박하는 변사또의 악행에 대해 비판을 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농민들의 의식 역시 전통시대의 현실에서 벗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춘향의 동료 기생들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춘향전>의 사건을 순서대로 따라가다 보면 우선 춘향과 이도령의 아름다운 사랑과 만나게 된다. 이 부분에서 보편적인 정서인 이성간

사랑의 환희를 감상하게 된다. 그러나 두 사람의 내적인 문제가 아닌 외적 문제로 인해 이별을 하게 되는 데, 이 부분에서 기생이라는 신분의 한계와 함께 시대적 아픔을 동시에 접하게 된다. 이후 변사또의 등장과 춘향의 守節이 나타난다. 여기서 춘향을 비롯하여 그녀를 둘러싼 모든 인물들이 당대 이데올로기에 저항하지 않고 투항하는 모습 속에서 '烈'이 얼마나 인간의 내면에 굳게 자리잡혔는지 알게 된다. 결국 이도령이 암행어사가 되어 돌아와 춘향을 꺾박했던 변사또를 징치하고 춘향을 구하게 된다. 이 장면에서 역시 죽을 고생을 하고 守節했던 춘향이 그 대가로 정열부인이 되었다는 결과를 접하게 되고, 춘향을 통해 대리만족을 하는 한 편 여성에게는 '烈'이라는 덕목이 최고라는 숨겨진 의도에 몰입하게 된다.

부모에게 영효 뵈고 친척의게 화목하며 가중상하의 칭성이 여되하니 아마도 천고괴수는 이 분이오 춘향의 고절은 다시 업슬가 호노라¹⁶⁾

명슈 촌기나 신위널너허야 즈손이 충성하고 복록을 누일썸 안이라 명전천췌허니 일로 두고 불진디 효초 충신 널너? 웃지 송하 잇스리요 직어인이요 불지귀천인 줄 어즈가지로다¹⁷⁾

춘향의 정절을 주달하이 상이 기특이 알오시고 예부의 전교하시고 정널부인 직침을 날이시매시숙부녀들아 이런 일을 효칙하여 승순군자하고 효봉구고하여 예질을 일치 말지여다¹⁸⁾

춘향의 절행이 천췌의 유명키로 후세 스통도 그 정절을 본밧고자 두어자 기록하고남여간의 나커덜랑 이와 갖치 효열을 같오치심을 발아로라¹⁹⁾

16) 파리 동양어학교 소장본 <남원고사> 끝 부분. 설성경 편저 『춘향예술사자료 총서』6, 국학자료원, 1998, pp201~202.

17) 신학균 소장본 <별춘향가>의 끝 부분. 설성경 편저 『춘향예술사자료 총서』7, 국학자료원, 1998, p306.

18) 이명선 소장본 <춘향전>의 끝 부분. 설성경 편저 위책, p683.

19) 홍윤표 소장본 <성춘향가>의 끝 부분. 설성경 편저 『춘향예술사자료 총서』8, 국학자료원, 1998, p120.

위의 인용문들은 필사본 <춘향전>의 끝 부분들이다. 작품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춘향전>을 읽고 난 후에 간단하게 평을 단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필사자이며 동시에 독자들인 향유층들이 한 두 문장으로 작품 전체의 주제에 해당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기록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록들은 <춘향전>을 읽고 난 후 느낀 가장 핵심적인 의미라 볼 수 있다. 독자들은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이야기보다는 춘향이 정절을 지킨 것에 더 주목하고 있다. 춘향전을 통해 주류사회에 대한 비판 혹은 저항 및 변사또의 만행 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다만 춘향이 정절을 지킨 것이 얼마나 훌륭한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으며, 후세 사람들이 반드시 본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춘향의 정절을 매개로 하여 ‘忠’·‘孝’를 포함시켜 조선시대를 통틀어 가장 중요시 되었던 덕목을 끌어내고 있다.²⁰⁾ 그러므로 독자들에게 <춘향전>은 많은 흥미소들을 뒤로한 채 유교적 이데올로기를 심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춘향전>은 주인공인 춘향이 신분적 차이로 인한 이별과 봉건주의적 관리와 대립구도를 형성하면서 정치적 무의식²¹⁾의 징후로 문학적 형상화가 이루어진 작품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상 그것은 겉으로 포장된 것이며 그 이면에는 당대의 정치적 목적이 은밀하게 숨어 있다. 순수한 사랑으로 포장되어 있으나 유교적 이데올로기의 정착 및 확산이라는 전체적인 목적이 내재된 소설이라 볼 수 있다. 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각 종 內訓書들과는 달리 인간의 정서로 파고들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대의 이데올로기를 내재화시키버리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 실제 <춘향전>의 내용에서는 ‘忠’·‘孝’를 강조하거나 구체화한 내용은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이 감상에서 이를 ‘烈’과 함께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작품이 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느 부분인가는 분명해진다.

21) 프레드릭 제임슨은 훌륭한 문학에는 반드시 정치적 무의식이 들어 있다고 말한다. 여기서 ‘정치적’이란 물론 개인적이고 심리적 차원이 아닌 계급적, 집단적 차원을 말하는 것이고, ‘무의식’이란 의식적이고 의지적인 사유와 행동이 아니라 모순으로 이루어진 현실과 역사에 대한 무의식적이면서도 필사적인 반응임을 말한다.

7. 결론을 대신하여

필자는 이 글에서 丙午孟夏 完山開刊 33장본 <열여춘향수절가>를 통해 춘향전 다시 읽기를 시도했다. 이 글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을 대신하여 앞의 내용을 정리하고 나머지 과제를 언급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이도령과 처음 만나는 장면과 사랑가 속에 있는 춘향의 무의식적 발화를 통해 본다면 춘향은 주류사회 속으로 투항하고자 하는 욕망이 감지되며, 그녀의 자아는 결코 주류사회를 비판하거나 혹은 그에 대항하여 저항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변사또에게 처음으로 수청을 요구받고 이를 거부하는 부분과 태형을 당한 후 꿈의 내용을 통해 볼 때 자신을 사대부 여성과 동일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도령과의 이별을 계기로 하여 기생이라는 정체성 위에 '烈女'의 정체성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춘향의 모습은 당대의 이데올로기 속에 몰입된 인물의 형상이라고 보아도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셋째, 춘향과 변사또 사이의 갈등의 근본 원인은 춘향의 저항의식 및 비판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교적 이데올로기를 지키려는 춘향의 판타지와 실정법에 의거해서 부정하려는 변사또의 행위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변사또에 대한 저항이 곧바로 지배층 및 사회의 모순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조선사회의 유교적 세계관에 철저히 투항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넷째, 작품 속에서 민중으로 대표되는 농민들의 목소리도 봉건적 모순의 총체적인 모습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기생임에도 불구하고 정절을 지키는 것은 매우 훌륭한 일임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농민들의 의식 역시 유교적 세계관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각들은 춘향의 동료 기생들에게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들은 모두 주체적인 자아를 갖고 시대와 정면으로 부딪치는 것이 아니라 당대 가장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결과적으로 <춘향전>은 주인공인 춘향이 신분적 차이로 인한

이별과 봉건주의적 관리와 대립구도를 형성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이면에는 유교적 이데올로기의 정착 및 확산이라는 의식이 내재된 소설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가 좀더 진전된다면 <춘향전>의 중세성을 논의하면서 다소 과장된 근대성 논의를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근대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춘향전>의 중세성을 인정하고, 나아가 중세성과 근대성의 교차점에서 논의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분들은 차후 과제로 남겨둔다.

- 핵심어: 무의식적 발화, 동일시, 저항의식, 비판의식, 유교적 이데올로기

<참고문헌>

1. 자료

열녀춘향수절가 : 丙午孟夏 完山開刊 33장본.

설성경 편저, 『춘향예술사자료총서』1~8, 국학자료원, 1998.

2. 논문

곽정식, 「<春香傳>의 主題論」, 『국어교육』96, 한국어교육학회, 1998.

金宇鍾, 「抵抗없는 成春香」, 『現代文學』6월호, 현대문학사, 1957.

金宇鍾, 「婚姻을 빙자한 姦淫과 獄死」, 『사법행정』21, 한국사법행정학회, 1980.

김의정, 「春香傳」, 『黃洞江教授定年紀念論叢Ⅱ 古典小說研究』

김재문, 「韓國古典小說속의 法律文書-춘향전·이춘풍전을 중심으로-」, 『고문서연구』4, 한국고문서학회, 1993.

김형돈, 「<춘향전>의 사회학적 고찰」, 『열мна 이용호 박사 회갑 기념 논문집』, 한샘, 1987.

- 박희병, 「春香傳의 歷史的 性格 分析」, 『전환기의 동아시아 문학』, 창작과 비평, 1985, pp105~106.
- 신동훈, 「평민 독자의 입장에서 본 춘향전의 주제-‘신학균본 별춘향가’를 중심으로-」, 『판소리연구』6, 판소리학회, 1995.
- 안성배, 「<춘향전> 주제의 재검토」, 『새국어교육』29, 한국국어교육학회, 1979.
- 우쾌제, 「春香傳 研究史 概觀」, 『春香傳의 綜合的 考察』, 亞細亞文化社, 1991.
- 이상택, 「춘향전 연구사 반성」, 『한국학보』2, 일지사, 1976.
- 정하영, 「春香의 抗拒와 그 意味」, 『국어국문학』93, 국어국문학회, 1985.
- 정하영, 「春香傳 改作에 있어서 身分問題-春香의 身分移動을 中心으로-」, 『한국언어문학』17·18합집, 한국언어문학회, 1979.
- 정하영, 「春香傳 主題論 再考」, 『春香傳의 綜合的 考察』, 亞細亞文化社, 1991.
- 조동일, 「葛藤에서 본 ‘春香傳’의 主題」, 『啓明論叢』제6집, 계명대학교, 1969, p30.
- 최진원, 「판소리文學攷-春香傳의 合理性과 不合理性-」, 『大東文化研究』2,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66.
- 韓勝憲, 「抵抗인가, 適應인가-法律家가 본 <춘향전>-」, 『文學思想』5월호, 문학사상사, 1974.

<Abstract>

Revisited <Chunhyangjeon>

— It is surrender than resistance —

Kang Moon-jong

This study tried to read Chun · hyang · jeon(春香傳) all over again through <Yeol · yeo · chun · hyang · syu · jyeol · ga> in Byeong · o maeng · ha(丙午孟夏) Wan · san · gae · gan(完山開刊) 33 chapters edition. The aim of this study is to criticize the common and stereotyped themes of <Chunhyangjeon> such as resistance, criticism and human liberation, and to find out the meanings hidden in the works.

At first, we can catch Chunhyang's desire to class herself into mainstream society in her unconscious words. So we can learn that her ego could not criticize the mainstream society and also resist it by no means.

Second, Chunhyang regarded herself in the same light as noble women and added the identity of 'virtuous woman' to her existing identity as a gisaeng(妓生) upon her parting with bachelor Lee. It is not too much to say that Chunhyang's above character was the typical character of people who were immersed in those days' ideology.

Third, the fundamental reason of conflict between Chunhyang and Governor Byeon lay not in the resistant sense and criticism of Chunhyang but in her fantasy to abide by Confucian ideology and his behaviors to deny her idea under the positive law. Therefore, the resistance to Governor Byeon(변사또) does not mean the resistance to

ruling class and social contradictions, rather showed that she obeyed thoroughly the Confucian idea of Joseon(朝鮮) society.

Fourth, the voice of farmers who stand for common people did not criticize the total aspects of feudal contradictions. As they praised highly that Chunhyang lead a virtuous life in spite of being gisaeng, their consciousness did little deviate from the Confucian ideology. Such view could be seen more clearly in Chunhyang's fellow gisaengs. They never challenged directly to that times with their own independent selves. They were just immersed in the most dominant ideology.

In conclusion, <Chunhyangjeon>'s ostensible framework is made up of Chunhyang's parting forced by social status difference and the antagonism with a feudal official. However, in the background, the novel intended to put down root and expand Confucian ideology.

- Key words: unconscious words, identification, resistance, criticism, Confucian ideology